



최소연 1968년생. 숙명여대 서양화과
와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회. 상남대
대·영지대 강사.



홍정아 1964년생. 덕성여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5회.



사혜연 1968년생. 이화여대 조소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학교
졸업. 개인전 2회, 홍익대 강사.



강수선 1967년생. 숙명여대 교목학과
와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개인
전 1회, 새우문방대 강사



상진민 1967년생. 숙명여대 서양화
와 동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학원 졸업. 개인전 3회.

Special Feature 386 여성작가들의 오늘과 내일

Korean Young

1990년대 이후 매체·장르에 관계없이 참여와 소통의 '확장된 장'으로써의 작업이 행해진다. 그 중 특히 주목할만한 현상은 386 여성작가, 즉 60년대 출생, 80년대 학창시절, 90년대 창작활동을 벌이는 이들이다.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격동과 혼란을 경험하고, 튀어온 이데올로기의 붕괴, 가치기준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만능화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386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날카로운 면이 있으며, 일종의 문화향상으로도 보여진다. <월간미술>에서는 이들 작가의 미술사적 위치와 현주소를 짚어보고, 19인의 386 여성작가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민소영 1968년생. 홍익대 동양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3회. 강남대·
백재대·우석대 강사.



민현 1968년생.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과와 상신여대 대학원 문화과 졸업. 개인
전 8회. 한양여대·서울산업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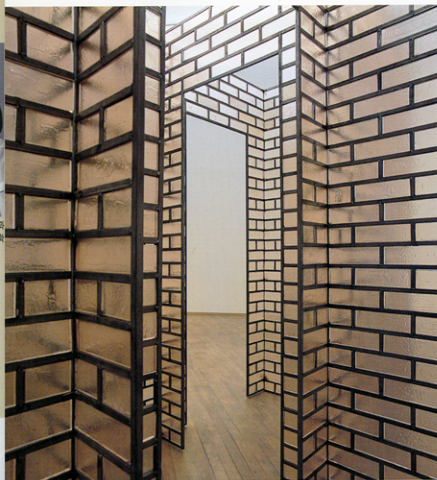
황기아 1966년생. 서울대 서양화과와
뉴욕 소트 오브 파우얼 아트 졸업. 개인
전 4회. 우정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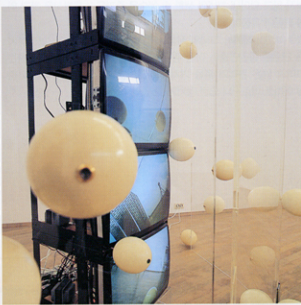
정서영 1964년생. 서울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연
구 과정 졸업. 개인전 4회. 미술협 강사.



신혜경 1961년생. 프랑스 프랑스 예술 프랑
스 미술대학. 연방과정 졸업. 조형학
학 박사. 개인전 6회. 우정대 교수.



원복 (forum - four rooms) 철 프레임 수직 2011×214×240cm 1999
원상 일부로 노출된 외벽은 방.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은 없다.
오른쪽 (four rooms - forum) 타조알 모티프 벽화로 커메디 아크릴
200×180×100cm 1999
모니타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 (여부인 소)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래 (장미의 요정)에 나무 합성수지 180×150×30cm 1996
합성수지를 제작한 벽은 작가를 자유롭게 하는 상상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희망과 꿈의
대변이다.



Korean Young Women Artists

서혜연·인간 본성의 구현

사혜연의 방에는 비밀이 없다. 반투명 벽으로 구현된 4개의 방은 각
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된 통로에 의해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된다. 타조알 내부에 숨겨진 페섹히로 카메라가 전시장 내부 장
면을 모니터로 중계하는 (four rooms - forum)을 보는 관객은, 자신
을 포함한 4개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지 몰래 카메라에 은밀한 사생
화가 노출된 듯한 당혹감을 느낀다.

반투명 벽이나 타조알을 통해서 사혜연이 제시하는 잃어버린 공간
간과 그것을 고수하려는 본능은, 인간 본성의 탐구라는 점에서 4년
전에 선보인 인공 오브제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허얀 캔버스
위에 뿌려지거나 나무상자 안에 부착된 벽조작들은 단순한 육체를 지
탱하는 구조물이 아닌 차이의 흔적이며, 이 흔적은 인간 본연의 상
상·희망·꿈을 구현하려는 작가의 기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화 기자

